

대선 첫 사전투표... 후보들 총력전

☎ '선택 2017' 대선 D-5

광주·전남 329곳 투표소에서
오늘·내일 오전 6시~오후 6시
이벤트 내걸고 지지층 독려
손가락 인증샷·SNS 게시 가능

대통령선거 사상 첫 사전투표가 4~5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사전투표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5월9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사전 신고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분증만 있으면 광주와 전남 329곳을 비롯한 전국 3507곳 사전투표소 어느 곳을 이용해도 된다.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 이후 8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전국단위 선거였던 2014년 6·4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11.5%였으며, 2016년 4·13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 12.2%를 기록했다.

4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각 정당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사전 투표를 올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사전투표율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는 등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결집을 독려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투표해야 세상이 바뀌고 불의와 불평등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낙관하거나 '나 하나 짝이야' 하고 투표를 포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서 지지층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문 후보는 회견을 마친 뒤에는 당사 앞 주차장에서 사전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청년들과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펼치고 사전투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흥대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사전투표하고 놀러가세요"

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3일 오전 광주 북구 선관위 직원들이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동영상에 직접 출연해 소중한 표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56초짜리 동영상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번 대선은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라며 지지를 부탁했다.

아울러 이언주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 게시물 형태의 피켓을 제작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기발함을 보였다. 안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선거공보 수어(手語) 영상도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홍 후보를 찍은 이유를 댓글로 남기는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에 나섰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유 후보가 기호 4번인 점을 살려 '4전 투표'를 하자는 캠페인에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전투표 독려 홍보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등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과 국민

의당 광주시·전남도당도 이날 사전 투표 독려와 함께 선거 막판 득표 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지 호소를 했다.

한편,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심' 잡기에 주력했고, 전국 각지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다. 문재인 후보는 경남,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는 전북에서, 심상정 후보는 강원도 춘천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대선 투표 캠페인 ... #나는_투표한다 왜냐하면

"내 미래, 첫 투표로 결정한다!"

생애 첫 선거 광주대 최원영

최원영(여·21·광주대 항공서비스학과 2년)씨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생애 첫 투표다.

경남 진주시 고향인 최씨는 지난해 대학 진학을 위해 광주에 온 뒤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큰 상실감을 느꼈다.

"대한민국 대다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밤낮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국정농단 사태로 '아차피 열심히 해도 잘살기 힘들다'는 허탈감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박기홍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잘나가는 KIA 20승 선착 "야구 보는 재미로 삽니다"

백센 꺾고 1위 질주

체질 개선에 성공한 '호랑이 군단'의 1위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KIA는 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10승에 이어 20승 고지에 선착했다.

KIA는 4월14일 단독 1위로 치고 오른 뒤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지난 주말 2위 NC와의 경기에서 1승2패를 기록하며 반 경기 차까지 쫓기기도 했지만, 이날 NC가 LG에 0-13으로 크게 지면서 1-2위 격차는 다시 1.5게임 차로 벌어졌다. <관련기사 20면>

투-타의 새 얼굴과 김기태 감독의 '동행'이 1위 원동력이다.

프로야구 FA 사상 처음으로 '100억' 벽을 깨고 새로운 4번 타자가 된 최형우가 타선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0.357의 타율과 함께 6홈런으로 22타점을 올린 최형우는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며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돌아온 '기스톤 콤비' 김선빈과 안치홍의 힘도 빼놓을 수 없다. 2, 6, 7, 9번 등에 배치돼 쉬어갈 틈 없는 타선을 구축한 두 사람은 차원이 다른 안정감 있는 수비와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면서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김선빈은 약점으로 꼽혔던 뜬공 처리에서도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트레이드도 적중했다.

김 감독은 지난달 7일 SK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포수 김민식과 외야수 이명기를 영입했다. 김민식은 공격적인 리드와 안정된 수비 그리고 특급 송구 실력으로 수비의 핵이 됐다. 연일 맹타를 터트리고 있는 이명기는 뛰어난 야구 센스까지 더해 타선의 새 바람이 됐다. 과감했던 트레이드 결단과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김 감독은 최고의 전력을 끌어냈다.

여기에 '동행'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준 김 감독의 인내도 한몫



KIA 김기태 감독

했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강조하는 김 감독은 기회를 통한 경쟁과 헌신 리더십을 묶어 고향팀 감독 3년 차 만에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선수층을 만들었다.

1위 행진 속에 KIA는 흥행의 중심에 섰다. 지난 4월29일과 30일 NC와의 홈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매진(2만500석)을 기록하는 등 15번의 홈경기에 19만 2955명(평균관중 1만2863명)을 관중을 불러들였다. 3월에는 KIA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시즌 처음으로 고척돔 1만7000석이 가득 찼다.

큰 틀에서 2017시즌을 그려왔던 김 감독은 의미 있는 생일을 보냈다. 음력 4월 8일생일 김 감독에게 3일은 마흔아홉 번째 생일. 제자들로부터 지독했던 넥센 열세 정리, 고척 야구장 탈출 그리고 20승 선착이라는 뜻깊은 선물을 받은 김 감독이 V11을 위한 항해를 이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역사 쿠키대 '전두환 회고록'

출판시장 영구 퇴출 당할까 ▶6면

정찬주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찾아서

바다와 결혼,富人 베네치아 ▶18면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 AMCF 20 by 20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